



## 중남미로 시장 다변화 본격화

- 한-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(SECA) 공식서명 및 통상장관 회담 개최 -
- 자동차·화장품·의약품 등 주요품목 및 K-푸드·컨텐츠 등 현지시장 진출여건 개선 -
- 새 정부들어 첫 번째 FTA 정식서명, 중남미 시장 수출 확산·시장 다변화 기대 -

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(Luis Alberto Jaramillo)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9.2.(화)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, 한-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(SECA)\* 협정문에 정식서명한다고 밝혔다.

\* 전략적경제협력협정(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) : 기존 관세 혜택 중심의 FTA에 환경, 노동, 공급망, 의료 등 다양한 경제협력 요소를 보완한 협정

한-에콰도르 양국은 ‘16년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‘23년 10월에 전체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. 한-에콰도르 SECA는 금번 정식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국회 비준 동의 등 잔여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. 에콰도르는 원유(중남미 3위), 구리 등 에너지·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국가 중 정세가 안정적이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자유무역 국가로서 투자 위험성이 적은 유망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. 우리정부는 에콰도르를 교두보로 삼아 중남미 시장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.

SECA가 발효되면, 최대 40%의 고율관세가 적용중인 우리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(하이브리드차의 경우 35%, 5년)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중국(20년 내 철폐), 일본(FTA無)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접근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. 또한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받는 화장품, 라면 등 소비재와 의약품 관세도 철폐되어 관련 수출확대도 기대되는 한편, 에콰도르 내 온라인 게임, 유통, 영화·음반 등 분야도 개방됨으로써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-콘텐츠 소비 및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.

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에 앞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“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” 고 하고, “SECA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시 공조, IT, 중소기업 등 SECA 내 다양한 경제협력 근거를 적극 활용하여,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” 고 강조했다.

양측은 향후 SECA 발효에 필요한 국회 비준 요청 등 잔여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.

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교섭관	책임자	과 장	손호영 (044-203-5830)
	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모덕춘 (044-203-5787)



## 참고 1

## 한-에콰도르 교역 및 투자 현황

### □ 교역 현황

< 한·에콰도르 연도별 교역 현황(백만불, 전년 동기 대비 %) >

구분		'18	'19	'20	'21	'22	'23	'24
수출	금액	782	479	378	761	771	645	517
	증가율	28.4	△38.7	△21.2	101.8	1.2	△6.3	△32.8
수입	금액	117	250	91	207	210	192	285
	증가율	△8.5	114.3	△63.9	128.9	1.4	△6.1	45.3
무역규모		899	729	469	968	981	863	802
증가율		21.9	△18.9	△55.4	106	1.3	△12	△7
무역수지		665	229	287	554	561	452	231

< 한·에콰도르 품목별 교역현황('24, 단위: 백만불, 비중 %), MTI 4단위 >

순위	수출			수입		
	품목명	금액	비중	품목명	금액	비중
1	경유(1332)	164	32	원유(1310)	172	61
2	원동기(7111)	102	20	과실류(0116)	40	14
3	자동차부품(7420)	38	7	새우(0421)	20	7
4	합성수지(2140)	33	6	동괴및스크랩(6221)	20	7
5	기타플라스틱(3109)	20	4	금(1111)	11	4
6	건설중장비(7251)	17	3	견과류(0125)	10	3
7	의약품(2262)	17	3	기타금속광물(1190)	2	1
8	윤활유(1336)	13	2	동광(1130)	2	1
9	열연강판(6132)	11	2	갈치(0413)	2	1
10	승용차(7411)	10	1	알루미늄괴및스크랩(6211)	1	1
10대품목 합		425	80	10대품목 합	280	100
전체		517		전체	285	

### □ 투자 현황

< 한국의 對에콰도르 연도별 투자 현황(백만불, 신고기준) >

구분	'18	'19	'20	'21	'22	'23	'24	총계
건수	1	3	-	-	6	2	1	219
금액	0	0	-	-	1	0	0.02	56

\* 자료: 한국수출입은행, '80년도~'24년 누적값

\*\* 현지진출 기업 : 삼성전자, LG전자 등 4개사

< 에콰도르의 對韓 투자 현황(백만불, 신고기준) >

구분	'18	'19	'20	'21	'22	'23	'24	총계
건수	-	1	1	1	-	-	-	6
금액	-	0.1	0.1	0.09	-	-	-	0.59

\* 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INSC, '62년도~'24년 누적값

\*\* 사례: 자동차부품 판매, 상품 종합도매

## 1. 국내 절차

- '15. 4. 1일 한-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
- '15. 4. 7일 한-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
- '15. 4.29일 한-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국회보고

## 2. 협상 현황

- '16년 1~5차 공식협상\* 개최
  - \* 1차('16.1, 키토), 2차('16.3, 서울), 3차('16.8, 키토), 4차('16.10, 서울), 5차('16.11, 키토)
  - 양측 입장차 등으로 5차 협상 이후 중단
- '21. 7월 에콰도르측이 협상재개 제안
- '22. 3월 한-에콰도르 통상장관회의, SECA 협상 재개 공동선언
- '22. 7월 「한-에콰도르 SECA」 제6차 공식협상(서울)
- '22. 10월 「한-에콰도르 SECA」 제7차 공식협상(화상)
- '22. 11월 「한-에콰도르 SECA」 제8차 공식협상(키토)
- '23.1~3월 「한-에콰도르 SECA」 회기간 협상(화상)
- '23. 4월 「한-에콰도르 SECA」 제9차 공식협상(서울)
- '23. 6월 한-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(서울)
- '23. 8월 한-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(화상)
- '23.10.11 「한-에콰도르 SECA」협상 최종 타결 선언  
(양국 통상장관 회담 직후, 양 통상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)

## 1. 상품

◆ 자동차(관세율 40%) 등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, 의약품(5%)·농식품(15~30%) 등 유망품목의 수출 확대 및 공급망 협력 기반 마련

◇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.4%, 에콰도르측은 92.8%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측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

\* 최종 시장개방률: (우리) 품목수 96.4%, 수입액 98.8%, (에측) 품목수 92.8%, 수입액 97.6%

① (주력품목 경쟁력 강화) 승용차·화물차(관세율 35-40%, 15년철폐), 가전제품(20%, 5년) 등 수출액이 큰 우리 주력품목\*의 관세철폐를 확보

\* 자동차 및 부품은 정제유를 제외, 에콰도르의 최대수입 품목이며 수입 규모(백만달러, 24.8월)는 ('21)1,1613 → ('23)2,323로 증가세

○ 에콰도르의 친환경 차량 지원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인 중·소형 하이브리드차( " 35%, 5년)\*는 단기 관세철폐를 확보하여, 우리 기업의 선점 효과 기대

\* 對에콰도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: ('22년) 6,508대 → ('23년) 10,452대 → ('24년) 12,726대

② (유망품목 진흥) 남미 지역(페루·콜롬비아 등) 유망품목 개방으로 對중남미 수출동력 강화 및 교역 다변화 기대

○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받는 화장품(20%, 10년)\* 및 라면(30%, 10년), 김(5%, 5년), 건강음료(20%, 7년) 등 소비재·가공식품\*\*의 관세를 철폐하고, 배(15%, 즉시)등 신선 과실의 수출 기반을 조성

\* 對 에콰도르 화장품 수출액(백만불): ('22년) 1 → ('23년) 2 → ('24년) 3

\*\* 한-페루 FTA 발효 후 5년간 식품류 수출은 평균 79.6 % 증가, 한-콜롬비아 FTA 발효 후 5년간 가공식품 수출은 발효 이전 대비 평균 25.1% 증가(FTA 이행평가보고서)

- 에콰도르의 개발 및 복지 정책으로 수요가 높아진 **건설중장비**\*(5%, 10년), **의약품**(5%, 즉시), **의료기기**(5%, 5년) 등의 개방으로 교역 품목의 다각화
- \* '26~'30년 사이 채굴 개시를 목표로 71억 달러 규모의 주요 광산 프로젝트 진행 중

### [ 관련 참고 ]

- **올해 한국의 대한약전(Republic of Korea Pharmacopoeia)이 에콰도르 참조약전(Reference Pharmacopoeia)에 포함\***
  - \* 에콰도르 해외 일반의약품 및 바이오제품 위생등록(Sanitary Registration)시 참조하는 해외약전에 대한약전이 포함되어 예측 개정규칙 관보게재(25.1월) 및 발효('25.6월)
  - **에콰도르 참조약전 포함시 에콰도르 자국내 의약품 수입승인 기간 대폭 단축**(에콰도르 식약처 의견 : 일반 : 6개월→3개월, 바이오 : 2년→3개월)
  - **SECA 발효시 관세철폐(즉철폐)와 함께 수입승인 기간 단축 등 참고약전 포함 효과로 우리 일반의약품·바이오제품의 수출 확대 전망**
  - \* 에콰도르 제약시장 규모는 22억 달러 수준('24)이며 국내 필요량의 85%를 해외에서 수입

### ③ (에너지 및 공급망 협력) 원유 등 천연자원의 관세를 철폐하여 국내 수급선을 다각화하고 이를 활용한 우리측 수출 기회도 모색

- 우리나라의 **對에 최대 수입품인 원유**(3%, 10년)와, **對에 최대 수출품인 정제유**(예측 관세율 10%, 5년)의 상호개방으로 **수출입 동시 활성화** 기대
- \* 에콰도르는 원유생산국(83억 배럴, 남미 3위)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시설이 부족하여 연간 66억달러가 넘는 휘발유 및 경유를 수입
- **사료용 옥수수**(328%, 10년)·**유장**(49.5%, 12년) 등의 관세를 철폐하여 **비상시 식량 수급 안정** 도모

### ④ (민감품목 보호) 농수임산물의 경우, 대부분 중남미 인접국과 체결한 기체결 FTA(한-페루, 콜롬비아, 중미 FTA 등) 범위 내에서 양허

- **쌀, 고추, 마늘, 양파 등 전통적인 민감 품목**을 비롯해 갈치, 고등어, 문어 등 **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로 보호**

- 냉동새우 등 에콰도르측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고정된 물량만큼만 제한적으로 개방(TRQ)\*하는 등 다양한 보호 수단 확보

\* 초기물량 10,000톤으로 시작하여 5년간 증량, 6년차 이후 연 15,000톤 쿼터 할당

- 장미 등 에콰도르産 화훼류의 경우 국내 업계 민감성을 감안하여 주요 화훼류 수입국\* 대비 관세 철폐 기간을 장기간(12~15년) 확보

\* EU(즉시 철폐), 콜롬비아(5년), 칠레(10년), 페루(10년), 베트남(10년) 등

< 양국 주요품목 개방 현황 >

	분류	주요 품목
상대측 개방	주력품목 경쟁력 강화	주요 자동차(15년), 중소형 하이브리드차(5년), 자동차부품(범퍼, 쇼크업소버, 보닛등)(즉시), TV(5년), 세탁기(10년)
	유망 품목진흥	의약품(즉시철폐), 의료기기(5년), 화장품(10년), 건설중장비(10년), 배(즉시철폐), 김(5년), 건강음료(7년), 라면(10년), 커피조제품(10년)
우리측 개방	에너지 및 공급망 협력	원유(10년), 사료용옥수수(12년), 사료용유장(12년), 배합사료(즉시철폐)
	민감품목 보호	쌀·고추·마늘·양파(양허제외), 갈치·고등어(양허제외), 냉동새우(TRQ), 유제품(양허제외), 바나나(5년), 파인애플(7년)

## 2. 경제협력

### ◆ 공급망·청정경제 등 포함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근거 마련

#### ① 에너지·광물, 산림, 보건 등 유망분야별 공급망 협력 근거 최초 마련

- 에콰도르는 석유(중남미 3위 매장량) 및 광물(금·은·구리 등)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, 에너지 및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최적의 파트너

\* 공식적인 매장량은未공개 상태이나, 금, 은, 동 전체 매장량은 약 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 광물이 지표면과 낮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어 채굴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

-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의 사례로서,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메커니즘\*을 규정하여 추후 양자 공급망 협력의 기반 마련

\* ①주요 에너지·광물자원의 수급위기시 공조체계 마련 및 협력위 통한 정보교환·공동 대응  
 ②산림 밸류체인 관련제품의 가공·공급·무역 ③보건산업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등

## ② 에콰도르 정부는 녹색경제 장기계획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, 친환경 기업 육성에 관심이 높아 해당에서 우리 기업 진출 및 협업 기회 제고

- 태양광발전·풍력·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지역을 구성하기 위한 투자 지원 및 합동프로그램 개발

- 중소기업 관련 민간·공공기관의 환경경영\*, 순환경제\*\* 등 협력 증진

\*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 감소 및 청정생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리

\*\*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모델

## ③ 연 1회 개최하는 협력위원회 및 필요한 분야의 추가적인 이행장치\* 마련을 통한 조직적인 이행 능력 확보

\* (기업환경개선) 감독기관 역할의 접촉선 지정, (중소기업) 민·관·학 협의체 구성

## 3. 서비스 분야

### ① 서비스 무역

- 온라인게임·시청각(영화, 음반 등)·유통 서비스 등 우리측 핵심 관심 분야 시장 개방으로 對에 진출 우리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력 확보

\* GATS 대비 추가 개방 분야: 온라인게임, 시청각, 유통(위탁판매, 소매, 프랜차이즈)

- 시청각 분야 개방으로 한국 드라마·영화 등 K-컨텐츠의 對에 공급 루트가 확대되어 에콰도르 내 한류 확산\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온라인게임 서비스도 우리나라에 최초 개방하여 경쟁력을 갖춘 우리 게임 기업의 안정적 對에 진출 기반 마련

## 2 금융

- 한-중미FTA('21.3.1.) 이후 중미권 국가와 체결된 FTA로서, 중미 금융 서비스 시장\* 진출 기반을 마련
  - \* 에콰도르는 미 달러화를 사용하여, 환위험 및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른 중미 국가 대비 낮다는 평가
- 한미 FTA 수준의 높은 개방도를 확보함으로써, 특히 신금융서비스가 진출하기 용이한 기반\*을 확보
  - \* 코로나 이후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로 지급·결제 등 연관산업 진출을 모색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

## 3 통신

- 양국간 통신협정문을 별도로 수립함으로써 양국의 공중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기반 마련
  - 양국의 공중통신사업자가 당사국의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
  - 재판매, 상호접속, 망요소세분화 등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의무 부과를 통해 양국간 통신 시장내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

## 4 디지털 무역

-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\* 마련을 통해 영화·드라마·음악 등 K-콘텐츠 및 온라인게임의 對에 시장진출 확대 지원
  - 한국 디지털제품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및 영구적 무관세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 마련

- 양국간 데이터 이전 허용\*으로, 우리 기업이 전자상거래 사업 중 수집한 정보를 한국 서버로 이전\*\*하여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 전략 수립 가능
  - \* 일정 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기업에게만 국경간 데이터 이전 허용(예측 개인정보보호법, '21.5)
  - \*\* (기존)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한국 서버로 이전 불가 → (개선) 데이터 이전 가능
- 아울러, 빠른 속도로 성장 중\*인 에콰도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화장품·식품 등 한국 제품 판매 촉진을 제도적으로 지원\*\*
  - \* '20년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 400% 성장(에콰도르 정보통신부)
  - \*\* 전자적 통관서류 허용, 전자송장 상호운용성 제고, 신속 통관절차 보장, 전자결제 촉진 등

## 4. 통상 규범

### ◆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 및 애로해소·권리보호를 위한 규정 도입

#### ① 정부조달

- WTO 정부조달협정(GPA)\* 미가입국인 에콰도르의 정부 조달시장\*\*을 개방하여 우리 기업 진출 기반 확대
  - \* 가입국간 정부 조달 시장의 개방(비차별원칙), 공정성, 투명성 등 경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WTO 복수국간 협정(현재 49개국 가입)
  - \*\* 에콰도르 조달 시장 규모 약 77억 달러('22년, 에콰도르 조달청)
- 에콰도르 정부는 에너지 다변화, 도로 등 공공인프라 재건, 스마트 시티 등 디지털 전환 정책\*을 추진 중으로
  - \* 2031 Electricity Master Plan,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등
  -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이들 분야\*\*에서 에콰도르 중앙·지방정부 및 공기업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에콰도르 공공 프로젝트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
  - \*\* 우리 기업은 그간 건설(도로, 상수도 등), 에너지(발전소, 정유소) 분야 중심으로 예측 공공시장에 진출, 현재도 우리 기업이 동 분야 입찰 준비 중

- 에콰도르 진출기업의 현지 거주요건 완화 노력 조항을 양국 FTA 최초 포함\*하여 기업 애로 해소 및 진출 여건 개선 기대
  - \* 에콰도르-EU FTA('23년 발효) 등 그간 예측이 기 체결한 FTA에 미포함
- 이외에도, 에콰도르 정부조달 시장 진출시 차별 금지, 낙찰 조건으로 국산품 사용·기술이전·현지투자 요건 부과 금지 등을 명시
  - 에콰도르의 자국기업·자국산 우선 관행 개선 기대

## 2 원산지

- (원산지 규범) 품목별 특성, 업계 사정에 따라 편의성을 제고하거나 기준을 엄격화하는 등 효과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(PSR) 도입
  - (전기·전자제품, 석유·화학제품) 해외 원자재 조달비율, 글로벌 소싱 증가 추세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 마련
    - 세번변경기준\*이나 부가가치기준\*\* 중 업계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
      - \* 세번변경기준 :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최종 제품을 생산한 경우, 최종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
      - \*\* 부가가치기준 :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
    - 특히, 우리의 對에콰도르 수출 1위 품목인 정제유\*는 우리 기업이 선호하는 공정기준\*\*까지 추가하여 수출 증대 기반 확대
      - \* 최근 3년('22-24)간 對에콰도르 수출 중 석유제품 비중은 45.3%
      - \*\* 상압증류, 강압증류, 촉매 하이드로프로세싱, 코킹 등
  - (수산식품, 섬유제품) 일부 수출 품목은 업계가 요구하는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 보호 기반 마련

- 우리 수산업계 주력 수출 품목인 김 조제품(조미김, 김부각 등) 생산시 역내산 김 사용 요건을 부과하여 국내 수산업 활성화 도모

\* 김은 '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, '22년 김 단일 품목으로 수출 1억불 달성 기업 탄생

- 섬유 중 우리 주력 수출 품목(합성 섬유직물 등) 생산시 역내산 화섬사 (yarn) 사용 요건을 부과하여 장기적 국내 섬유 생태계\* 경쟁력 확보

\* "원사 → 원단 → 원단가공(염색 등)"의 가공 과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규정하여 국내 화섬 산업의 연계 공조

### □ (원산지절차.통관) 원산지절차 간소화, 양국 간 통관절차.무역관행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수출 제고 기반 마련

- 원산지증명 절차를 한-EU FTA 수준으로 간소화\*하는 한편, 非원산지 상품의 FTA 특혜 차단을 위한 다양한 원산지검증 절차 확보

\* 인증수출자의 경우 별도의 증명 절차 없이 수출 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장 기재(날인)

- 양국 간 원산지 협력조항을 별도로 도입하여 인증수출자 정보 교환,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 등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
- 품목분류, 원산지, 관세평가 등 대부분 분야의 사전심사 서비스 제공하고, 신속한 결과회신(90일)에 합의하여 예측 가능한 FTA 활용 지원
- 48시간內 화물반출, 365일 24시간 긴급화물 통관 지원 등 통관 및 무역원활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

## ③ 무역 구제

### □ WTO 대비 엄격한 규범\*을 도입하여 무역구제 조치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 방지 도모

\* 양자 세이프가드: 조치 시 보상체계 마련, 1년 후 점진적 자유화, 잠정조치(200일)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: 가격약속(undertakings), 필수 정보 공개, 공공이익 고려 등

- 무역구제 이슈 관련 양국 간 대화채널로서 무역구제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쟁점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

#### 4 경쟁

- 에콰도르내 공정 경쟁 촉진, 경쟁법관련 제재시 구제 강화로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여건 마련
  - \* 에콰도르 진출 기업('25년) : 삼성전자, LG전자, 한솔EME(토목), 건화(토목)
- 에콰도르 내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, 공기업·지정독점 기업에 경쟁법 적용 등을 명시하여,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에콰도르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, 독과점 등 불공정 경쟁 방지 근거 마련
- 우리 진출 기업이 에콰도르 경쟁법 제재 대상이 될 경우 재판을 통한 사법적 구제 뿐 아니라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로는 최초\*로 행정적 구제 근거도 포함하여 절차적 공정성, 방어권 보장도 강화
  - \* 한-칠레, 한-페루, 한-콜롬비아 등 여타 중남미 국가와의 경쟁챕터에는 구제방안을 규정하지 않았으며, 한-중미 FTA에서는 사법적 구제방안만 명시함

#### 5 지식 재산권

- 에콰도르 내 K-컨텐츠 및 제품이 소비 트렌드로 정착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
- 이에 미등록상표도 유명상표로 보호 가능, 非동일·非유사 상품·서비스에 대해서도 유명상표 보호 등 높은 수준의 유명상표 보호 의무를 규정
  - 또한, 한류 컨텐츠 지재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장치\*를 마련하여, K-컨텐츠·제품의 안정적 확산 기대
    - \*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, 침해시 집행규범(민·형사 절차, 통관 보류 등)

## 6 TBT

- 기술규제 등과 관련된 수출기업 애로 완화 방안을 마련함
  - 기술규정 개정 시 60일간 의견수렴 및 채택 후 6개월 이상 유예기간 적용, 기술규정 영문본 제공 등을 규정하여 수출기업의 원활한 기술규제 대응 기반을 마련함
    - 특히, 기술규정 개정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, 우리 FTA 최초로 명시하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·예측가능성 확보
  - TBT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기술규제 관련 현안 발생 시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 구축